

#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er Company

## 프로필 작성

인천시립극단은 199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공립극단으로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인천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인천 시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 할인혜택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청소년 연극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만들기'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삶의 중심을 세우는 공립극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2019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	기획공연	청소년대상 공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외공연	상설무대	기 타
공연건수	30	2	1	-	25	-	1	1
공연횟수	46	16	3	-	25	-	1	1
관람인원	11,764+ ?	4,674	3,221	-	6,360	-	400	330

\*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30건 / 46회			
2019. 3. 1 ~ 3. 3 대공연장 (3회)	삼일절 100주년 특별공연 “100년 후		<p>밤 바닷가, 어린 소녀 김란사는 거대한 고래와 함께 빛나는 북극성에 닿으려 달려가지만 해적선을 끌고 온 두꺼비들에 의해서 좌절당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등불을 높이 들고 희망을 노래한다.</p> <p>성인이 되어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자 문학사(文學士)가 된 김란사. 인천감리서 별감이자 독립운동가인 하상기의 아내인 그녀는 10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신지식으로 조선의 여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싶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배움의 터전이었던 이화학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안으로는 신여성 교육을 비판하는 남성들에게 밖으로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간악한 일본의 행위를 눈감는 세계열강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좌절한다. 그러나 여성의병 윤희순과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기생들, 그리고 ‘선생님처럼 자신의 삶에 등불을 켜고 싶다’는 제자 유관순 등을 만나며 여성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란 것을 다시 깨달으며, 변화한 100년 후의 세상을 꿈꾼다.</p> <p>한편 헤이그 특사 파견에 실패한 고종황제는 김란사와 의친왕을 불러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것을 명령하며, 조선을 독립을 인정받고 중국에 망명정부를 세워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파리로 가는 기차역에서 김란사는 남편으로부터 고종황제가 독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설상가상으로 일본 밀정의 추격을 받아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9. 4. 15(월) 인천인혜학교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320
2019. 4. 16(화) 인천가좌여자중학교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160
2019. 4. 17(수)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100
2019. 4. 18(목) 영락전문요양센터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50
2019. 4. 19(금) 산곡고등학교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400
2019. 4. 22(월) 사랑의 쉼터 요양원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70
2019. 4. 23(화) 효성노인문화센터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150
2019. 4. 24(수) 남동구노인복지관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450
2019. 4. 25(목) 계양구노인복지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찾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150
2019. 4. 26(금) 남인천중고등학교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로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500
2019. 5. 7(화) 인천남중학교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450
2019. 5. 8(수) 명신여자고등학교				350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9. 5.. 9(목) 용현중학교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250
2019. 5. 10(금) 덕적중고등학교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100
2019. 5. 13(월) 안남고등학교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0
2019. 5. 14(화) 동암중학교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300
2019. 5. 15(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70
2019. 5. 16(목) 인천중학교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530
2019. 5. 17(금) 강남중학교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500
2019. 5. 27(월)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계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100
2019. 5. 28(화) 강화군 노인복지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100
2019. 5. 29(수) 인천은혜요양원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70
2019. 5. 30(목)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100
2019. 5. 31(금) 청라중학교				390
2019. 6. 3(월) 청학공업고등학교		200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9. 6. 14(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400</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9. 7. 6(토)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p>	<p>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33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9. 8. 31 ~ 9. 8 소공연장 (8회)</p>	<p>제79회 정기공연 “거대한뿌리”</p>	<p>작 : 박근형 연출 : 박근형</p> <p><b>*출연진*</b>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조연출 : 이은준 무대디자인 : 심채선 조명디자인 : 정태민 영상디자인 : 정병목 음악감독 : 박민수 음향감독 : 이복행 분 장 : 장경숙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최혜진 무대감독 : 손지영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울분을 토하는 시인 김수영.</p> <p>그는 문학 동료들의 격렬한 문학 논쟁을 하며 이승만을 규탄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4·19를 맞이하여 김수영 시인은 신새벽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p> <p>문득 자신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되새기며 회한에 젖어 든다.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과 거제도 포로수용서의 참혹한 경험을 겪고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학을 바라보는 김수영.</p> <p>그러나 4·19 이후 민주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꿈꾸었으나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대는 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김수영은 부정한 시대를 한탄하며 시를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선다.</p> <p>그러던 어느 날... 그가 48세이던 1968년 6월 15일 통금을 앞두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친다. 다음 날 아침 적십자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의 죽음 앞에, 그날 4·19 때 거리를 뒤덮었던 한 무리의 고교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p>	<p>2,103</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9. 12. 1 ~ 12. 8 소공연장 (8회)</p>	<p>제80회 정기공연 “클레오파트라”</p>	<p>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각색 : 이홍이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이민우 조명디자인 : 최보운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박현이 음향감독 : 김현산 안무 : 금배섭 분 장 : 이지연 무대감독 : 최성국 무대조감독 : 박수예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로마고 뭐고 확 통째로 강에 떠내 러가 버리라지. 내 우주는 여기 있어. 나라? 그까짓 거 그냥 땅덩어리 아 니야, 뭐 어찌라고. 인생이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널 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p> <p>로마는 언제나 이집트를 탐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로마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이집트를 지켰다. 그때 로마의 패권을 놓고 안토니와 시저가 전쟁을 벌이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연인 안토니를 돕는다. 그러나 안토니 측은 계속 패하고 마침내 거 의 괴멸되고 만다. 안토니는 천신만 고 끝에 이집트로 피신해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라는 무덤으로 위장한 요 새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 다. 안토니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자결하는데...</p> <p>인천시립극단의 &lt;클레오파트라&gt;는 모호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는 팔레스타 인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느와 르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깡패들 의 공간이거나 미래의 디스토피아 적 공간일 수도 있다. 어느 곳이든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공간이고 싸움이 사랑을 파괴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욕망과 명분을 위한 전쟁 이 점차 모든 것을 잠식해나간다.</p>	<p>2,571</p>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9. 8. 31 ~ 9. 8 소공연장 (8회)</p>	<p>제79회 정기공연 “거대한뿌리”</p>	<p>작 : 박근형 연출 : 박근형</p> <p><b>*출연진*</b>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송예은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조연출 : 이은준 무대디자인 : 심채선 조명디자인 : 정태민 영상디자인 : 정병목 음악감독 : 박민수 음향감독 : 이복행 분장 : 장경숙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최혜진 무대감독 : 손지영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정 : 이옥희 기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울분을 토하는 시인 김수영.</p> <p>그는 문학 동료들의 격렬한 문학 논쟁을 하며 이승만을 규탄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4·19를 맞이하여 김수영 시인은 신새벽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p> <p>문득 자신이 살아온 격동의 세월을 되새기며 회한에 젖어 든다. 일제시대의 어린 시절과 거제도 포로수용서의 참혹한 경험을 겪고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문학을 바라보는 김수영.</p> <p>그러나 4·19 이후 민주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꿈꾸었으나 박정희의 쿠데타로 시대는 다시 겨울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김수영은 부정한 시대를 한탄하며 시를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선다.</p> <p>그러던 어느 날... 그가 48세이던 1968년 6월 15일 통금을 앞두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친다. 다음 날 아침 적십자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둔다. 그의 죽음 앞에, 그날 4·19 때 거리를 뒤덮었던 한 무리의 고교생들이 자유를 외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p>	<p>2,103</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9. 12. 1 ~ 12. 8 소공연장 (8회)</p>	<p>제80회 정기공연 “클레오파트라”</p>	<p>각색 : 이홍이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좌백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김희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각색 : 이홍이 무대디자인 : 임일진 작곡 : 이민우 조명디자인 : 최보운 영상디자인 : 김성하 의상디자인 : 오수현 소품디자인 : 박현이 음향감독 : 김현산 안무 : 금배섭 분 장 : 이지연 무대감독 : 최성국 무대조감독 : 박수예 사진촬영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려진</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행 정 : 이옥희 기 획 : 이돈형 비상임 : 조성신</p>	<p>“로마고 뭐고 확 통째로 강에 떠내 러가 버리라지. 내 우주는 여기 있어. 나라? 그까짓 거 그냥 땅덩어리 아 니야, 뭐 어찌라고. 인생이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널 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p> <p>로마는 언제나 이집트를 탐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로마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이집트를 지켰다. 그때 로마의 패권을 놓고 안토니와 시저가 전쟁을 벌이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연인 안토니를 돕는다. 그러나 안토니 측은 계속 패하고 마침내 거 의 괴멸되고 만다. 안토니는 천신만 고 끝에 이집트로 피신해오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라는 무덤으로 위장한 요 새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 다. 안토니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자결하는데...</p> <p>인천시립극단의 &lt;클레오파트라&gt;는 모호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현재도 전쟁이 계속되는 팔레스타 인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느와 르적인 분위기가 압도하는 깡패들 의 공간이거나 미래의 디스토피아 적 공간일 수도 있다. 어느 곳이든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공간이고 싸움이 사랑을 파괴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욕망과 명분을 위한 전쟁 이 점차 모든 것을 잠식해나간다.</p>	<p>2,571</p>

※ 기획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9. 3. 1 ~ 3. 3 대공연장 (3회)</p>	<p>삼일절 100주년 특별공연 “100년 후</p>		<p>밤 바닷가, 어린 소녀 김란사는 거대한 고래와 함께 빛나는 북극성에 닿으려 달려가지만 해적선을 끌고 온 두꺼비들에 의해서 좌절당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등불을 높이 들고 희망을 노래한다.</p> <p>성인이 되어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자 문학사(文學士)가 된 김란사. 인천감리서 별감이자 독립운동가인 하상기의 아내인 그녀는 10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신지식으로 조선의 여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싶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의 배움의 터전이었던 이화학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안으로는 신여성 교육을 비판하는 남성들에게 밖으로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간악한 일본의 행위를 눈감는 세계열강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좌절한다. 그러나 여성의병 윤희순과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기생들, 그리고 ‘선생님처럼 자신의 삶에 등불을 켜고 싶다’는 제자 유관순 등을 만나며 여성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란 것을 다시 깨달으며, 변화한 100년 후의 세상을 꿈꾼다.</p> <p>한편 헤이그 특사 파견에 실패한 고종황제는 김란사와 의친왕을 불러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것을 명령하며, 조선을 독립을 인정받고 중국에 망명정부를 세워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파리로 가는 기차역에서 김란사는 남편으로부터 고종황제가 독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설상가상으로 일본 밀정의 추격을 받아 위협에 빠지게 되는데...</p>	

※ 찾아가는 시립극단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9. 4. 15(월) 인천인혜학교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320
2019. 4. 16(화) 인천가좌여자중학교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160
2019. 4. 17(수)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100
2019. 4. 18(목) 영락전문요양센터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50
2019. 4. 19(금) 산곡고등학교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400
2019. 4. 22(월) 사랑의 쉼터 요양원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70
2019. 4. 23(화) 효성노인문화센터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150
2019. 4. 24(수) 남동구노인복지관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450
2019. 4. 25(목) 계양구노인복지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150
2019. 4. 26(금) 남인천중고등학교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500
2019. 5. 7(화) 인천남중학교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450
2019. 5. 8(수) 명신여자고등학교				350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9. 5.. 9(목) 용현중학교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250
2019. 5. 10(금) 덕적중고등학교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100
2019. 5. 13(월) 안남고등학교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0
2019. 5. 14(화) 동암중학교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300
2019. 5. 15(수)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70
2019. 5. 16(목) 인천중학교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530
2019. 5. 17(금) 강남중학교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500
2019. 5. 27(월)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계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100
2019. 5. 28(화) 강화군 노인복지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100
2019. 5. 29(수) 인천은혜요양원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70
2019. 5. 30(목)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100
2019. 5. 31(금) 청라중학교				390
2019. 6. 3(월) 청학공업고등학교				200

\* 해외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건 / 회			명

※ 상설무대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9. 6. 14(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400</p>

\* 기타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9. 7. 6(토)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p>	<p>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로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330</p>

## 시립극단 단원명단

예술감독 : 강량원

훈 련 장 : 이완희

단 무 장 : 김화산

조 연 출 : 손경희

사 무 : 이옥희, 이돈형

수 석 : 서좌백, 이범우, 강주희

제1차석 : 차광영, 김세경, 강성숙

제2차석 : 심영민, 정순미, 김태훈

상임단원 : 김현준, 최진영, 김문정, 이수정, 송예은,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 2019년 12월 31일 기준